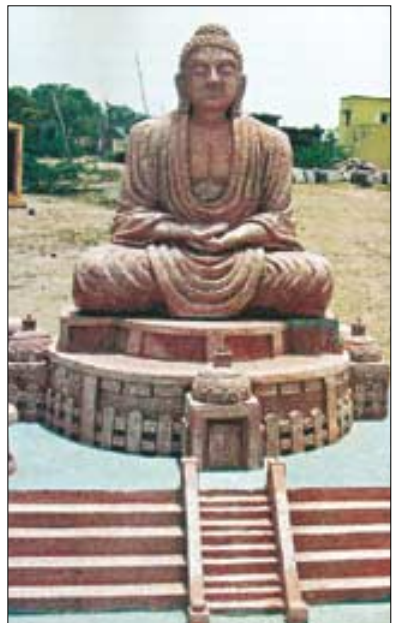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주 일대 불교성지로 개발

세계 경전번역센터·테마파크 등 조성 계획 용수보살 말년 보낸 곳... 등록 유적지 144개

지난 1월 중순 인도의 암라와피에서 진행되었던 칼라차크라를 계기로 암라와피와 인근의 나가르주나 콘다 등이 불교 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안드라 프라데시 주 정부는 칼라차크라가 열린 시기를 전후하여 나가르주나 콘다를 비롯한 크리슈나 강변의 불교 유적지 개발 계획과 불교 연구소 설립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불교 유적지 보존사업과 불교 순례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칼라차크라를 기념해 암라와피에 조성된 불상

<슈타니 파타>에 의하면, 안드라 프라데시는 부처님 생전시 불법이 전파되었던 지역으로, 이후에도 주변 지역에 불교 전파가 계속돼 안드라 프라데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크리슈나 강 주변 여러 군데에 사찰과 승원이 생겨났다.

특히 그 중 한 곳의 승원은 대승불교의 시조인 나가르주나(용수보살)가 말년을 보낸 곳으로 유명하다.

이후 대승불교는 티베트와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전해졌는데, 그 뿌리를 되찾아 가면 결국 안드라 프라데시의 나가르주나 콘다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원래 나가르주나가 살았던 승원은 나지막한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난 1974년 나가르주나 사가르 댐이 완공되고 이로 인하여 부근이 수몰지역이 됨으로써 애초에 언덕이었던 이 지역이 섬이 되었다. '콘다'라는 말은 안드라 지역어로 '언덕'이라는 의미로서, 유명한 나가르주나의 승원이 언덕 위에 있었기에 그 지역을 아예 '나가르주나의 언덕'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러나 현재는 언덕이 아닌, 댐에서 4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 되어버려, '콘다'라는 이름이 조금은 무색하다.

수몰로 인하여 주변에 흩어져 있던 30개의 불교유적지가 함께 수장되는 아픔도 있었다. 그러나 주 정부는 각 수몰 유적지에서 불교 유물들을 모두 모아 섬이 된 나가르주나 콘다에 박물관을 건립했다.

현재 인도 고고학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5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는 안드라 프라데시 지역의 불교 유물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나가르주나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사리가 사리함에 모셔져 있기도 하다.

이런 역사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안드라 프라데시 주 정부는 이 지역을 국제적인 불교 센터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이외에도 암라와피에 연구소 설립을 선포하고 제반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은 경전번역센터로 출범할 이 연구소를 몇 년 내로 국제적인 불교 연구소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주 정부의 계획이다.



나가르주나 콘다에 위치한 상할라 승원의 유적

또한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수도인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주립 박물관에 '불교 유물 갤러리'를 개장해 이 지역의 불교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선보이고, 나가르주나 콘다에는 불교 테마파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안드라 프라데시에는 인도 고고학협회에 등록된 불교 유적지만도 144개에 이르며, 이 중 55개 유적지에서 현재 보수 및 주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 정부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하이데라바드에 국제공항과 숙박 시설, 도로망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도=이지은 통신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주부(JuBu) 붐'에 주목하자

최근 불교계 언론을 통해 접하는 해외 불교 관련 소식 중 '주부(JuBu)'라고 하는 용어가 눈길을 끈다. 이 단어는 유대교 신자이면서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인 '유대교 불교도, Jewish Buddhist'를 줄여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이런 소식을 대하는 불자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명상의 방법만을 받아들이는 일시적 현상이지 결코 불교계의 확장은 아니다"며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이런 흐름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독선적이던 유대교 신자들까지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 역시 불교가 21세기의 대안이다"며, 불교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펴는 근거로 삼는 이들도 많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5월 26일자에 '두 종교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흥

이 있다. 10여 년 동안 불교 공부한 뒤 유대교 랍비가 된 알란 류(Alan Lew)는 유일신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유대교와 초월적 존재가 없는 불교의 절묘한 혼합을 "아름답고 창조적인 두 종교의 만남"이라고 부른다.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 불교 단체인 '로스앤젤레스 다르마(L. A. Dharmal)'의 설립자 마이클 시프만(Michael Shiffman)이 말하듯이, 대다수의 '주부'들은 불교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단지 조금 더 행복하게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부' 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주부'와 유사한 흐름은 늘 있었고 그런 흐름이 불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것 또한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유학자와 도가 사상

오랜 역사 속 다양한 사상과 만나 불교 발전 부처님 가르침 온 세상에 전할 방안 모색해야

미 있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베카 토폴(Becca Topol)이라는 37세의 유대인 여성은 헤브류 말로 평화를 뜻하는 '샤롬(Shalom)'이라고 새긴 작은 돌과 부처님 상을 함께 거실에 모셔놓고 명상에 잠긴다.

그녀는 말한다. "저는 유대-불교도입니다. 불교 수행을 통해 유대교로서의 신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41세의 유대인 남성인 데이빗 그로텔(David Grotell)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여기는 일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집안에 명상 수행 공간을 마련하면서도 불상을 모실 수는 없었다"며 자신이 겪고 있는 혼란을 토로하기도 한다.

현재 이른바 '주부'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몇몇 통계에 따르면, 새로 불교도가 되는 사람들 중 30%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 미국 내 유대인들이 600만 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주부' 붐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종교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불교에 다가오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지에 대해 몇 가지 추론

가들 중에 불교에 심취해서 재가 거사로 활동하거나, 스님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른바 '중교 불교'의 발전을 가져왔던 이들이 많았다. 우리 불교사에서도 그런 예들을 술하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초의선사와 서신 논쟁을 펼친 추사 김정희였다.

오랜 불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상과 접하여 그들을 끌어들이는 오늘날의 불교가 이룩되었다. 아마 이 시대 '주부'들 중에서도 훗날 역사가들 눈에는 '위대한 불교 사상가'로 비칠 인물이 태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부' 뿐만 아니라 이미 '크부(ChBu: 기독교 불교도)'와 '무부(MuBu: 무슬림 불교도)'도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불교계가 할 일은, 이처럼 다양한 종교 전통을 지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할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해외에 불교를 포교하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주부' 붐을 예의 계속된다면 미국의 종교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비구니 수계, 세계 합의 이끌어내야"

달라이 라마 강한 의지 피력

지난 5월 7일 태국에서 열린 '-vesakday) 국제불교도 회의'에서 태국의 비구니수단 설치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달라이 라마가 최근 티베트에서 열린 불교관련 세미나에서 비구니 수계에 관한 불교계의 합의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티베트 인터넷 뉴스 사이트 '파올닷컴(Phayul.com)' 5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이 세미나에서 "비구니 수계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티베트 불교계의 입장을 정리한 뒤 스텝리카와

태국 등 세계 불교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의 이 같은 말은 티베트 불교계가 세미나 등을 통해 비구니 수계에 대한 전 세계 불교국가의 관심을 고취시킨 뒤, 이를 주제로 한 국제불교회의를 열어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티베트 불교계가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 사이트는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또 "비구니 수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이행해야만 티베트 불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비구니 수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영우 기자**

재앙 면한 인니 보로부두르 사원

지난 5월 28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지진은 6천여 명의 사망자와 1만 여명의 부상자를 내는 등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다.

그러나 족자카르타에 있는 세계 최대 불교 유적 중 하나인 보로부두르(borobudur·사진) 사원은 동남아 최대인도 유적지인 프람바난 사원이 심한 피해를 입은 것과는 달리 회를 모면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보로부두르 사원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사원 한 변의 길이가



111.5m로 단일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이며, 432개의 500 여 개의 불상과 1500 여 개의 벽면 조각 등 내부 규모 또한 엄청난 다. **한영우 기자**

大韓佛敎曹溪宗 第九教區 本寺 桐華寺 第二十五代 住持 南明 虛韻和尚 晋山式

초·래·합·니·라

듣고(聞), 사유하고(思), 뒤음(修)에 의해 스스로 정진하는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남명 허운화상의 진산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진산식은 새 주지스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비움과 마음 맑히는 것을 수행의 제일로 삼았습니다. 화합의 실천은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하게 맑혀져야 가능합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부디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으며 많은 격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 제25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합장

불기 2550년 6월 17일(토) 11시 · 동화사 통일대불 앞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객스님 여비는 중단 지침에 따라 지급하지 않습니다.